

국내 등록외국인 보험가입 현황과 시사점

김세중 연구위원, 박희우 연구위원, 김윤진 연구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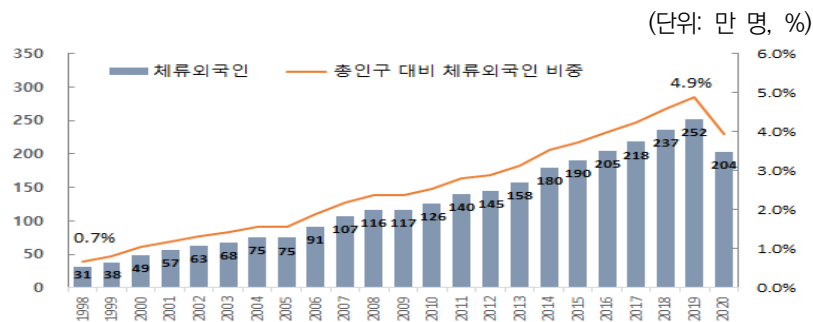
- 국내 등록외국인의 비중은 전체인구 대비 2.5%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산업은 이들의 특성 및 보험가입 행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국내 등록외국인의 인구구조는 남성의 비중이 높고 20~30대 젊은층의 비중이 높다는 측면에서 내국인과 차이점을 가짐
 - 출신 국가별로는 한국계 중국인과 아시아 지역 비중이 높고 남성의 경우 취업자 자격이 대다수인 반면 여성의 경우 결혼 및 동거·거주인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가짐
 - 외국인 보험가입 특성을 살펴보면 30대와 60대 보험가입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건강보험에 대한 선호가 높고 설계사 및 외국인 특화 채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보험금 청구도 내국인에 비해 진단과 수술 비중이 낮고 입원 및 통원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임
- 국내 등록외국인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보험회사는 젊은층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채널 위주의 판매 전략이 필요해 보이며, 장기적으로 등록외국인의 지역적인 분포 및 체류목적도 다양화될 것에 대비하여 다양한 상품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30대 젊은층 비중이 높은 외국인 시장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단순한 보장성 상품과 노후를 대비한 연금상품 등이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채널전략이 필요해 보임
 - 한편, 남성의 경우 취업자 비중이 높고 최근 직장을 통한 단체보험 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적보험 및 단체보험의 보장공백 니즈에 대응한 상품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인구 비중은 낮지만 보험가입 증가율이 높은 고령층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이며, 현재 젊은층의 노후 대비를 위한 노후소득 및 건강보장 상품의 제공도 요구됨
 - 20대 유학생 증가를 감안하여 납입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낮으며 가입이 간편한 미니보험(치아보험 등) 개발, 여성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전용 건강 및 헬스케어 등의 특화상품 설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향후 내국인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수요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외국인 대상 보험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보장공백과 소비자 보호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1. 검토배경

- 국내 체류외국인¹⁾은 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기준 약 252만 명을 기록하며 우리나라 총인 대비 4.9%의 비중을 차지함
 -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여 204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6년과 유사한 수준임
 - 국내 체류외국인 중, 91일 이상 체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인 국내 등록외국인²⁾은 2019년 127.2만 명, 2020년 114.6만 명임

〈그림 1〉 국내 총인구 수 대비 체류외국인 수 비중 추이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중 중위추계 결과

- 국내 등록외국인의 비중은 전체인구 대비 2.5% 수준(2020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산업은 국내 등록외국인의 특성과 보험가입 및 지급행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국내 등록외국인은 내국인과 다른 특성(연령별 성별 비중, 직업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험산업은 잠재적 고객군으로서 국내 등록외국인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³⁾
 - 또한 국내 등록외국인의 내국인과 다른 특성은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도 차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및 지급행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되는 샘플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등록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함)의 보장 니즈가 내국인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한국신용정보원 CreDB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신용정보를 샘플링하여 가명조치한 분석용 데이터이며, 보험 신용정보에는 인보험, 정액보험 정보가 등록되고 순수 실손보험 데이터는 제외됨

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용어설명에 따라, 「관광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91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등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체류외국인을 의미함
 2)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
 3) 이태열(2019. 5), 「우리나라 인구 문제와 외국인 이동의 중요성」, 『KIRI 고령화리뷰』



2. 국내 등록외국인 특성

○ (성별) 국내 등록외국인은 2020년 기준 남성이 65.1만 명(56.9%) 여성이 49.4만 명(43.1%)으로, 남성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남성과 여성 각각 2.6%, 2.9%로 여성의 증가율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국내 등록외국인 성별 추이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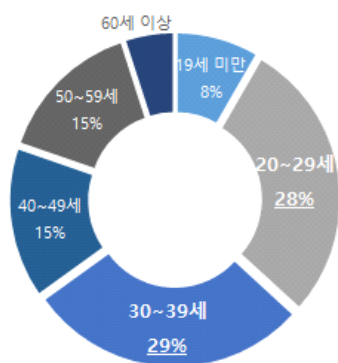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남성	65.6	66.5	67.1	71.7	72.7	65.1(56.9%)
여성	48.7	49.7	50.0	53.0	54.5	49.4(43.1%)
합계	114.3	116.2	117.1	124.7	127.2	114.5
증가율	4.7%	1.6%	0.9%	6.4%	2.0%	(연평균 2.7%)

자료: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통계청, “국적(지역)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 (연령별) 20대와 30대가 전체 등록외국인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연령대는 40대 > 50대 > 19세 미만 > 60세 이상 순으로 분포하고 있고, 이러한 연령분포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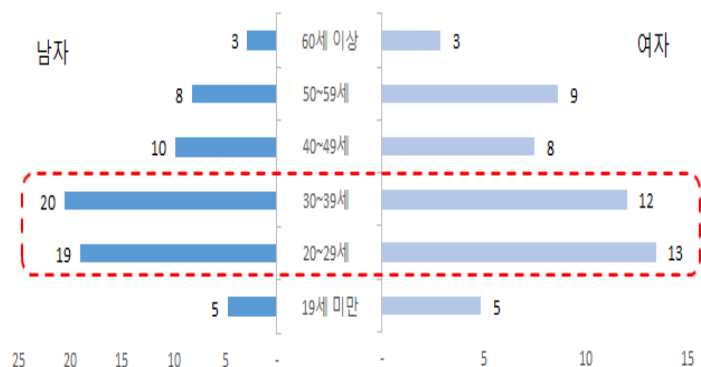
- 남자는 30대 인구가 가장 많았고 20~30대 분포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여성은 20대 인구가 가장 많음
-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40~50대가 주를 이루는 역삼각형 모양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의 인구구조는 20~30대가 주를 이루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2〉 국내 등록외국인 연령별 비중



〈그림 3〉 남·녀 연령별 등록외국인 분포

(단위: 만 명)



주: 2020년 기준임

자료: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통계청, “국적(지역)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 (국가별) 한국계 중국인과 아시아 지역(중국과 베트남이 다수)이 국내 등록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캐나다/유럽/호주계 외국인 수는 미미하긴 하나 매년 총 6~7만 명 정도의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

- 2020년 국내 등록외국인의 감소는 주로 한국계 중국인과 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의 영향이 한국계 중국인과 아시아 지역 등록외국인에서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됨

〈표 2〉 국내 등록외국인 지역별 인구 수 추이

(단위: 만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한국계 중국인	38.0	34.2	31.9	34.5	33.3	28.7
아시아 지역	69.1	74.5	77.7	81.9	85.1	77.4
북아메리카주	3.0	2.9	2.9	2.9	3.0	3.0
유럽주	2.5	2.7	2.7	3.1	3.5	3.2
오세아니아	0.3	0.3	0.2	0.2	0.3	0.2

자료: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통계청, “국적(지역)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 (체류자격별) 남자는 비전문취업자와 방문취업자가 절반을 차지하였고, 여자는 결혼이민, 방문동거·거주, 영주 순으로 체류 목적 비중이 높았음

〈표 3〉 체류자격별/성별 국내 등록외국인 분포

(단위: 명, %)

구분		취업			유학	영주	결혼이민	동거·거주 등	기타
		전문	비전문	방문취업					
남자	수	24,352	231,482	91,936	45,478	74,654	25,841	68,722	39,191
	비중	3.7	35.5	14.1	7.0	11.5	4.0	10.6	6.0
여자	수	15,795	19,785	60,629	55,722	86,079	106,283	97,937	28,454
	비중	3.2	4.0	12.3	11.3	17.4	21.5	19.8	5.8

주: 1) 2020년 기준임

2) 취업에서 단기취업은 제외함, ‘방문취업’은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취업을 위해 발급되는 체류자격임

3) 기타는 문화예술, 기술연수, 일반연수, 취재, 종교,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등을 포함함

자료: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통계청,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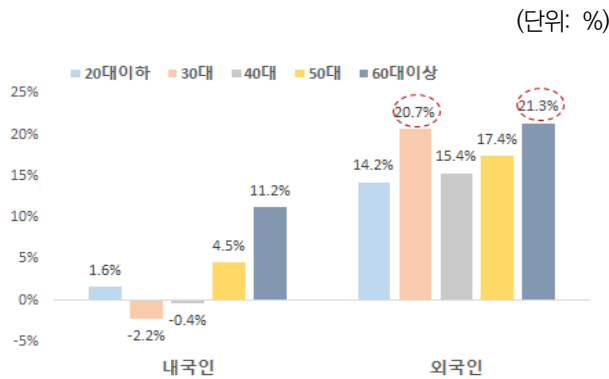
3. 국내 등록외국인 보험가입 현황

○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외국인의 보험가입 증가율은 내국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업권별로는 생명보험 보다 손해보험 가입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에서 외국인의 보험가입 증가율은 내국인보다 높았으며, 특히 30대(20.7%)와 60대 이상(21.3%)의 보험가입 증가율이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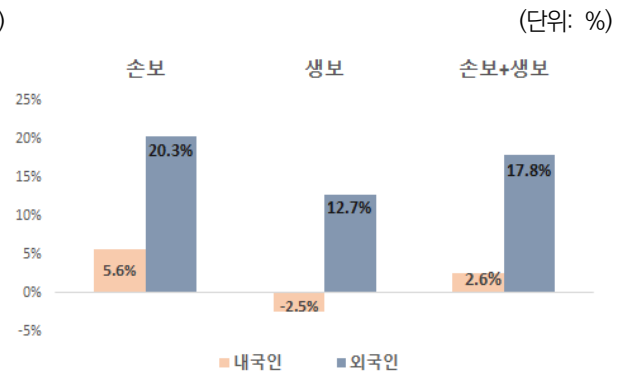
- 보험개발원 조사 결과, 보험가입 증가율이 아닌 보험가입률 측면에서 외국인의 보험가입률은 20.9%로 내국인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⁴⁾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한 외국인의 보험가입 증가율은 17.8%로 내국인 보험가입 증가율인 2.6%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권별로 비교했을 때 생명보험보다 손해보험의 증가율이 높았음

〈그림 4〉 연령별 보험가입 증가율



주: 1) 2014~2020년 연평균 증가율임
2)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 건수의 합으로 계산함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CreDB 맞춤형DB

〈그림 5〉 업권별 보험가입 증가율



주: 2014~2020년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CreDB 맞춤형DB

- 2015년 기준 외국인의 보험상품별 가입 건수 비중을 내국인과 비교해 보면 질병보험 가입률이 11%p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상해보험 비중은 내국인에 비해 소폭(0.1%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으로는 외국인의 기타보험이 크게 증가하면서 타 상품 비중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질병보험 비중은 내국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서 2015년 대비 2020년의 종신, 연금, 저축, 상해 상품 가입 비중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품 비중 변화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남

〈표 4〉 가입 상품 비중 비교(2015년 vs. 202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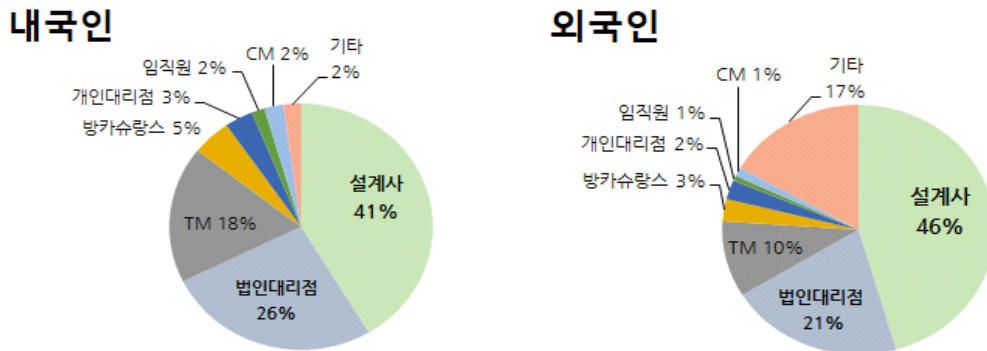
구분		종신	질병(건강)	연금	저축	상해	암	운전자	기타
내국인	2015	13	22	7	8	23	11	14	2
	2020	7	25	2	2	21	9	30	4
외국인	2015	11	33	5	7	23	7	11	2
	2020	6	26	1	2	16	7	21	21

주: 1) CreDB 18개 상품 분류 중, 종신, 건강, 연금, 저축, 상해, 암, 운전자, 기타 상품의 비중을 정리함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CreDB 맞춤형DB

4) 보험개발원 보도자료(2017. 5), “외국인의 생명보험 가입현황”; 파이낸셜뉴스(2019. 7. 30), “생명보험 가입한 외국인 26만 명”

- 외국인의 판매채널별 가입 건수 비중을 살펴보면 설계사와 법인대리점 등 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비중이 약 65% 이상으로 내국인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비중이 내국인보다 높고 외국인 특화 채널로 추정되는 기타 채널의 비중이 17%로 상당하다는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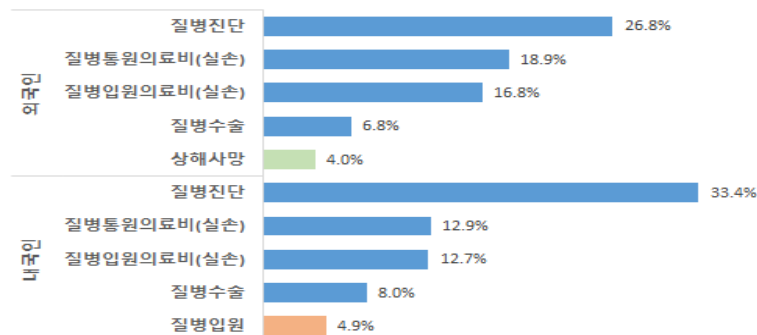
〈그림 6〉 채널별 가입 비중



주: 2020년부터 2021년 1분기까지 가입 건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CreDB 맞춤형DB

- 외국인의 보장 담보별 보험금 지급액 비중을 내국인과 비교해 보면, 지급액 기준 상위 4개 담보인 질병진단, 통원의료비, 입원의료비, 질병수술 등의 순위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에 비해 질병진단·수술보다는 통원·입원의료비를 더 많이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외국인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지급된 담보는 상해사망인 데 비해 내국인의 경우 질병입원인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의 인구구조가 내국인에 비해 젊은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질병 진단 및 수술 빈도가 낮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직업적 특성이 상이한 점으로 인해 상해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입원보다는 통원을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림 7〉 담보별 보험금 지급액



주: 전체 지급액 중 비중이 큰 상위 5개 담보들의 비중만 나열함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CreDB 맞춤형DB



4. 시사점

- 국내 등록외국인의 인구구조는 남성의 비중이 높고 20~30대 젊은층의 비중이 높다는 측면에서 내국인과 차이점을 가지며, 출신 국가별로는 한국계 중국인과 아시아 지역 비중이 높고 남성의 경우 취업자 자격이 대다수인 반면 여성의 경우 결혼 및 동거·거주인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가짐
- 외국인 보험가입 특성을 살펴보면 30대와 60대 보험가입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건강보험에 대한 선호가 높고 설계사 및 외국인 특화 채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보험금 청구도 내국인에 비해 진단과 수술 비중이 낮고 입원 및 통원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임
- 국내 등록외국인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보험회사는 젊은층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채널 위주의 판매 전략이 필요해 보이며, 언어적 장벽과 함께 문화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 친화 판매채널의 운용이 필요해 보임
 - 20~30대 젊은층 비중이 높은 외국인 시장은 필요한 보장을 스스로 선택하여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장성 상품과 노후를 대비한 연금상품 등이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채널 전략이 필요해 보임
 - 한편, 남성의 경우 취업자 비중이 높고 최근 직장을 통한 단체보험 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적보험⁵⁾ 및 단체보험의 보장공백에 대응한 상품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외국인의 출신 지역이 한국계 중국인과 아시아 지역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언어와 함께 이들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외국인 친화 판매채널의 운용이 필요해 보임
- 장기적으로 외국인 인구도 고령화될 수 있고 지역적인 분포 및 체류목적도 다양화될 것에 대비하여 다양한 특화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인구 비중은 낮지만 보험가입 증가율이 높은 고령층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이며, 현재 젊은층의 노후 대비를 위한 노후소득 및 건강보장 상품의 제공도 요구됨
 - 20대 유학생 증가를 감안하여 납입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낮으며 가입이 간편한 미니보험(치아보험 등) 개발, 여성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전용 건강 및 헬스케어 등의 특화상품 설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경 간 인구의 이동이 정체되고 있으나 내국인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수요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외국인 대상 보험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보장공백과 소비자 보호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5)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전용 4대보험(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운영 중임